

“사양기술 수출하려면”



김인호
(송원축산 이사)

양돈장의 정문은 양돈업에 있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양돈장의 사활(死活)이 달린 방역을 비롯하여 제품(중돈·비육돈·기타 출하돈)의 출고 및 원료(사료·약품·기타 비용성자재)의 입고가 정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내용이 바로 양돈사양의 종합결과이며, 이 결과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맥이 된다. 이 정문으로 통하는 맥을 짚어 합리적인 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다. 사양의 종합결과인 수익성(생산비:매출액) 산출도 30초이내에 가능해지는 곳이 정문이다. 이러한 정문에서 뛰는 맥은 강하고(수익성 높고) 균일성(지속적인 생산성)이 있어야만 된다. 이와 같이 강하고 균일한 맥박이 보장된다면 내부에서 행

하여지는 모든 내용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사양에 관한 내용을 컴퓨터 두뇌장치화시켜 이용할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합리적이야……

이를 뒷받침하려면 사양여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컴퓨터 두뇌장치(소프트웨어)화 시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이

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정문의 생김새부터 시작하여 사무실 위치, 도로, 돈사 배치, 돈사 형태, 백년 이용 가능한 건축자재, 실내 공간이 감안된 돈사 크기, 내구성이 감안된 시설물, 사료 급여통의 크기 및 재질, 품종 및 환경여건에 따른 사료성분(농가 부산물이용), 사료 급여형태, 양돈장, 부산물(돈분·돈뇨)의 에너지화 및 비료생산, 최종 처리수의 재활용방안 등 정문을 통해 들어간 모든 것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화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양돈 사양」수출이 가능해 진다.

정문을 통하는 맥이 균일해지려면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여 경제적인 값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부업규모의 양돈장은 이렇게, 전업규모의 양돈장은 이렇게, 기업규모의 양돈장은 이렇게”라는 가장 합리적인 내용의 백과사전을 수출해 보자는 이야기다.

정문을 통하는 맥이 강하고 균일해지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총 동원한 결과의 최소비용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여 경제적인 값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



야 된다. 소비자가 강한 스테미너 식품으로 요구하거나 천연 식용 화장품용으로 개발해 달라면 우리 생산자들은 그 요구에 맞는 제품을 즉각 생산해야만 된다. 제품의 명칭도 「장수식품」·「스테미너식품」·「미용식품」·「보약식품」 등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쪽으로 호칭되는,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의 저변확대를 꾀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제품의 가격도 고급화시킬 수 있게 되며, 수출하고자 하는 백과사전의 내용을 더욱 믿게 해주는 뒷받침이 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려면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문제의식을 개선책까지 연결시키는 자세

둘째, 지금까지의 「나」를 버리고 크게 발전된 「나」로 되고자 하는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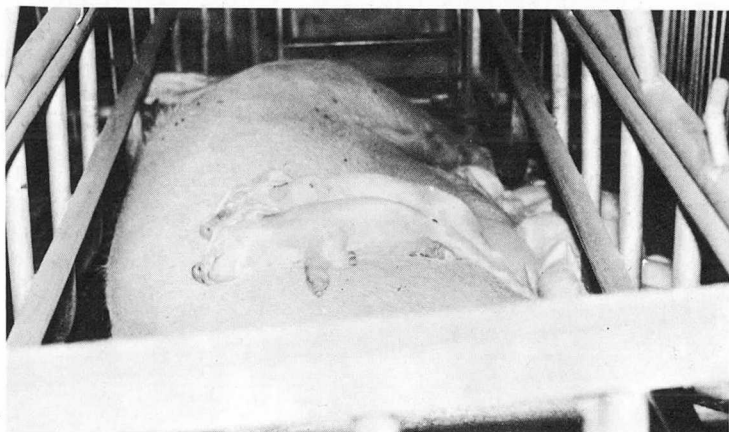
셋째, 매사를 “가능”쪽으로 몰고가는 자세

넷째, 부분의 맥을 전체의 맥과 연결시키는 습관 태도

다섯째, “내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적극적인 참여 자세

문제의식은 대책을 낳고 대책수립은 실천을 낳고 실천은 보다 좋은 결실을 낳는다.

문제의식은 대책을 낳고, 대책수립은 실천을 낳고, 실천은 보다좋은 결실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실천이 반복 지속되면 고여있는 물 웅덩이가 아닌 웅달샘처럼 모습은 같아도 내용이 새로워지는 발전형으로 된다. 고여있는 웅덩이 분위기 속에서만 있어 본 경우에는 썩은 물의 악취가 정상적인 내용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웅달샘의 신선한 분위기에 있다가 웅덩이 분위기를 접하게



되면 부패된 내음을 느낄 수 있다.

사양관리 경우에서 웅덩이 분위기란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를 뜻하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식의 당위성을 합리화 시키고 “왜 이렇까, 어떻게 하면 개선되지?”라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해 웅달샘의 분위기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방법은 어떨까?”하고 개선책(문제의식+대책수립)을 찾아 웅덩이에서 탈출하는 분위기를 말한다. 하나는 뭐든지 안되는 쪽으로 합리화시키는 경우이고, 하나는 뭐든지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결과 웅덩이 분위기 속에서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 하다. 손해본다. 안 될 텐데...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웅달샘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해 보

자. 가능하리라 본다. 이렇게 하면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발전적인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수출용 백과사전의 내용엔 웅달샘 분위기에서 건져낸 알맹이들이 수록되어야 하며,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정을 양돈인 모두에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후 더 좋은 내용들이 탄생되면 개정판 백과사전을 발간해야 된다.

정문에서 뛰는 맥이 강하게 되어질 때 「수출용 백과사전」으로 제작하여 세계 이웃들에게 퍼 보아야...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추구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돈분·돈노가 접촉하는 부위의 돈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자재가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가? 라는 점에서 쇠붙이 재질이나 기계 모타처리장치는 내구성면

에서 비합리적이 되며, 모타 사용은 에너지 소모면에서도 비합리적이 된다. 이러한 쇠붙이 구조 및 기계장치가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인위적인 작업체제(시멘트 콘크리트 돈방구조)로 바꾸는 것 역시 비합리적이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이나 인건비 상승추세 면에서 기계장치보다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기계장치나 인력사양관리 체제를 탈피한 설계가 창안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떤 재질이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구조로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덧붙여 규모에 맞는 돈방 크기나, 환기 보온을 위한 경제적인 시설, 돈분·돈노처리와의 연관성 등 정문으로 통하는 굵직한 맥과 연계시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우리 주위에 수 없이 흩어져 있다. 기존 사양방식에 만족하고 있거나 얕는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훗날 웅달샘 사양방식에서 얻어진 가장 합리적인 양돈내용을 표준화시켜 1차 국내에 보급시키고, 정문에서 뛰는 맥이 강하고 균일하게 되어질때, 「수출용 백과사전」으로 제작하여 세계 이웃들에게 퍼 보이자. 지금은 자세를 바로 해둘 때이다.

〈필자 연락처 : (0636) 52 - 2677~9〉